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비교

킹제임스 성경: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주의 말씀들;the words of the Lord]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주의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편 12편 6-7절)

개역 성경: 여호와와 그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keep us safe]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protect us].(시편 12편 6-7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순수한 말씀들을 지키시고 영영토록 보존하시겠다는 그분 자신의 약속을 담고 있다(시12:7). 즉 하나님은 자신이 계시한 순수한 말씀들을 영영토록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각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순수한 말씀들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유대인만을 상대로 하셨을 때는 히브리어 사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전기에는 그 당시의 국제어인인 그리스어 사본으로, 영어 시대에는 영어로, 그리고 각 국가별 번역본들로), 자신의 계획과 능력으로 자신의 순수한 말씀들을 온전히 보존(번역하여 보존)하는 일을 실제로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의 보존에 관한 바로 이 구절이 달리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변경되거나 오역된 부분들이 많아서(I,II의 표 참고) 개역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다 영영히 보존될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며(딤후3:16),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록하신 영의 역사를 통해 계시하신 말씀들, 즉 성령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신 기록들은 한 치의 오류도 없고[성경무오성] 또한 순수한 말씀들로서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양식이요 생명이 된다. 그런데 한 치의 오류도 없어야 하고 순수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교묘히 혹은 부주의하게 변경되거나 오역이 되었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충격과 의분을 초래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을 교묘히 변경하여 악용했던 자 바로 그 마귀(창3:1-5, 마4:6 등)가 과거 역사 속에서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악랄하게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물론 개역 성경이나 NIV와 같은 현대 역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어느 정도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다만 이러한 현대 역본들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애석하게도 변경된 부분들과 오역된 부분들로 인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다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들이라고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현대 역본들 안에 있는 변경되고 오역된 부분들이 하나님(그리스도)의 신성 등을 저해하거나 독자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에 대한 부정확한 또는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부로 고치는 것, 즉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경고하고 계신다(신4:2, 잠30:5-6, 계22:18-19).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every word)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마4:4). 특히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끝이 나서 성경이 완성된 AD 100년경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완성된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그 모든 말씀들 모두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하 [흠])을 기준으로 하여 개역 성경(이하 [개]) 안에, 같은 현대판 성경인 NIV 성경(이하 [N])도 참고하여, 변경되고 오역된 부분들 중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나 하나님(그리스도)과 그분의 말씀들에 대한 바른 믿음 내지 성경을 통한 바른 교리의 정립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하였다.

I. 변경된 부분

연번	성경구절	구분	내용	비고
1	창1:21, 은1:17, 마12:40	부분변개	[개,N]물고기(creatures: fish), [흙]고래(들); 정확성, 고래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름 부여	정확성
2	창3:5	"	[개,N]하나님과 같이 되어, [흙]신들과 같이 되어; <i>타락 전 인간의 말이 하나님과 견줄 [θ을 대적할] 수 없음</i>	영적존재들, 하2:5-9
3	창4:8	"	[개,N]아벨에게 (들르 나피디고)고하라, (said 'lets go to the field.' ~), [흙]OPD를 하라(talked with). 그뒤에(it care to pass); <i>기인은 아벨을 시기심으로나 충동적으로 죽이지 않음</i>	요일3:12/ 히11:4, 눅 11:50-51
4	창10:21	"	[개,N]셈은 아벳의 형이라, [흙]셈은 그 형 아벳의 동생이라; <i>이들의 가계를 연구하면 아벳이 형</i>	정반대
5	창12:19	"	[개,N]나로 그(사래)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으나, [흙]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디름
6	창33:18	"	[개,N]평안히(safely)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흙]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샬렘(Shalem)에 이르러; <i>아굽의 귀환은 환난함, 고유명사인 지명을 삭제, 변경시킴</i>	아굽의 귀환이 평안하?
7	창36:24	"	[개,N]광야에서 온천(the hot spring)을 발견, [흙]광야에서 노새들(the mules)을 발견	말세, 교잡의 문제!
8	출3:1	"	[개,N]그 무리를 광야의 서편(west side)으로 인도하여, [K]그 떼를 사막의 뒤편(backside)으로 인도하여; <i>실제 모세는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름</i>	미디안 광야?
9	출4:2, 삼상17:40, 시23:4, 렘48:17, 사9:4, 10:5, 15 등	"	[개,N]막대기(staff)/뿔동이(club), [흙] 지팡이(staff); 지도, [개,N]지팡이(rod), [흙]막대기(rod); 짐승퇴치, 징계	삼하 23:21, 7:4, 시89:32
10	출4:25-27	"	[개,N]피 남편(bridgroom of blood), [흙]피흘리는 남편(bloody husband); <i>피를 보게 만드는 남편</i>	십보라의 불만
11	출14:8	"	[개,N]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boldly, 다른 역본-의기 양양하게; triumphantly) 나갔음이라, [흙]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with a high hand) 나갔더라	민33:3, 출 6:1, 13:3, 9, 14, 16
12	출15:2	"	[개,N]~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흙]~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출15:17, 수 18:1, 대하 3:1, 6:41
13	출20:6/ 신7:9	"	[개,N]천대까지(to a thousand generations of them) 은혜를/그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흙]수천의 사람들에게는(thousands of them)/지키는 자들에게는(with them) 언약을 지키시며 천대까지(to a thousand generations; 부서구 '영원히' 의미)	자기 공로(의)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 받는 것 x
14	출22:22 등	"	[개,N]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흙]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50여 군데
15	민10:29/ 샓4:11	"	[N]모세의 장인/모세의 처남 호반, [개, 흙] 모세의 장인 호반	불일치
16	삼하21:19	"	[N]Elhanan killed Goliath(골리앗), [개, 흙]Elhanan slew the brother of Goliath(골리앗의 동생)	불일치
17	대상4:19	"	the sister of Naham[개,N]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Hodiah's wife, the sister of Naham)의 아들들은, [흙]나함이 누이요, 그의 아내인 호디아(his wife Hodiah)의 아들들은	동성애자는 자녀를 가질 수 없음
18	신32:33, 욥30:29, 시 44:19, 사13:22, 렘29:3	"	[개,N]뱀(serpents), 이리/들개(jackals)/시랑(hyenas), 악어(monster)등, [흙] 용들(dragons); <i>일관되게 기록!</i>	용들의 정체
19	대상4:10	"	[개,N]~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harm)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흙]~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evil)에서 지리시며 근심이 없게 하소서~; <i>아베스의 기도(冊)는 기록적 x</i>	마6:13, 요 17:15 참고
20	대상16:3, 호3:1	부분변개+삭제	[개]떡 한 덩어리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cake) 하나씩, [N] '고기(flesh)' 를 삭제, [흙](구운)빵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a flagon of wine) 한 잔씩	이스라엘 문화
21	대상20:3,	부분변개	[개,N](암문자손으로) 툼질과 썩레질과 도개질을 하	다윗은 하나님의 명

	삼하12:31		게 하나니라(consigning them to labor ~), [흠]똥과 쇠씨레와 도끼로 그들을 자르니라 (cut them with~)	령을 존중	
22	대하22:2, 8:26 비교	왕하	"	[N,개]twenty-two years old, 문장도 똑같음(왕하8:26, 대하22:2-also사제), [흠]twenty & two years old(왕하8:26), forty & two years old(대하22:2); - <i>아달라의 결혼 전후 이듬들</i>	아하시야(Ahaziah)-동명이인
23	대하30:22		"	[개,N]우리가 ~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praised the Lord), [흠] 그들이 ~ 화평 헌물을 드리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백하는 말을 하였더라 (making confession to the Lord)	제대로 보존
24	욥6:13		"	[개,N]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나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흠]나의 도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나? 지혜가 내게서 아주 쫓겨나갔느냐? <욥1:20-21, 2:10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욥을 볼 때>	정반대
25	욥6:14	부분변개	[개,N]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피한 자[욥]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거늘, [흠]고난 받는 자[욥]를 그의 친구가 불쌍히 여길 것이로되 그[엘리바스]가 전능자 두려워하기를 저버리는도다	욥은 주를 두려워함	
26	욥7:1, 14:14	"	"	[개,N]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힘든 노동; hard service)이 있지 아니하나~, [흠]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appointed time)이 있지 아니하나?~	문맥
27	욥16:9	"	"	[개,N]그는 진노하사~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 (opponent)이 되어 ~, [흠]그분께서 진노하사~나를 향하여 이를 가시니 내 원수 (enemy; 마귀)가~	하나님은 욥의 원수x
28	욥19:25-26	"	"	[개,N] 내가 육체 밖에서(in or apart from my flesh) 하나님을 보리라, [흠]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주의 재림 시 부활하여 주를 볼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정반대, 스펀 14:4, 요일3:2
29	욥21:12, 창4:21	부분변개	[개,N]~피리(flute) 불어, [흠] 오르간 (organ) 소리에; 피리 를 피리 (광상1:40), 코넷 (대하15:14), 오르간 으로 구분	오르간은 -old	
30	욥22:30, 사13:22	"	"	[개,N]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흠] 죄없는 자들의 섬을 구출하시리니~ ; not x→ 섬 (island)	[개]에 10:1
31	욥24:16	"	"	[개,N]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니, [흠]대낮에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표시해 두었다 가 여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들을 뚫으며 빛을 알지 못하니	정확성
32	욥30:9-12, 민33:22, 신33:17, 사22:21, 사4:7	"	"	[개,N]~ 그의 힘이 들소(wild ox)와 같도다, [흠]~ 그의 힘은 유니콘 의 힘과 같도다	유니콘은 상상동물??
33	욥31:33	"	"	[개,N]~탄인(men)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흠]~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 (Adam)같이 내 범죄들을 숨겼던가	유명사; 첫 사람
34	욥35:15	"	"	[개,N]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였고 ~, [흠]분노하사 벌을 주셨느니라 ~	벌주는 욥의 고난독격
35	욥36:18	"	"	[개정,N]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 [흠] 진노가 임하였으니 그대는 주의하여 ~큰 대속물 도~; ① 진노의 주체: 욥x→ 하나님, ② 대속물(ransom)	마20:28, 뱀전 1:18-19
36	시10:4-5	"	"	[개,N]그(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흠]그(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정반대
37	시12:7	완전변개	[개,N] 저희(us)를 지키사~영원토록 보존, [흠] 그 것들 (the words of the Lord)을 지키사 영원히 보존	말씀들 보존 약속!	
38	잠18:24	부분변개	[개,N]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흠]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정반대; 잠17:17, 잠27:10	
39	잠26:22	"	"	[개,N]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別食; choice morsels)과 같아서, [흠]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정반대
40	잠23:33	"	"	[개,N]네 눈에는 괴이한 것 (strange sights)이 보일 것, [흠]네 눈은 낯선 여자들 (strange women)을 바라볼 것 (behold)	정확성; 능동적 탈선
41	전1:14, 17, 2:11, 17, 26, 4:4, 6, 16, 6:9	"	"	[개,N]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흠]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	요일 2:15-17

42	사9:3	"	[개,N]주께서...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흠]주께서...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정반대
43	사14:12	"	[개,N]계명성(morning star), [흠]루시퍼(Lucifer) ☞ 현대판 성경들은 사탄을 계명성(새벽별)로 변경함, 그런데 계22:16에서는 예수님을 새벽별(MS)로 기록함	정확성 쟁, 신성 모독 가능성 有
44	단3:25	"	[개,N]신들이 아들(a son of the gods)과 같도다, [흠]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과 같도다	구약시대 예수님?
45	호10:1	"	[개,N]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흠]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정반대
46	욥2:6	"	[개,N]낮빛이 하얗졌도다(turn pale), [흠]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gather blackness): 크고 두려운 주의 날(the Lord's day)을 나타내고 이 날에 대한 백성들의 심리상태 반영	정 반 대 표현에도 이유 有
47	암4:4	"	[개,N]삼 일마다(every three years or on the third day)너희 심일조를 드리며, [흠]삼 년 뒤에 (after three years)너희 심일조를	다른 의미
48	미5:2 [예수님에게 근본/기원이 있는가?]	"	[개,N]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그의 근본(Whose origins)은 상고에, 태초에 [흠]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그의 나아감(whose going forth)은 옛적부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오직 창조물만 근본 [기원] 有
49	말3:10, 시17:3	"	[개,N]나를 시험하여(test me[God]), [흠]나를 시험하여(prove me[God]); 고후13:5/엡5:10-'임증(증명/드리내게)'하라(prove)'뜻	[개] 마 4:7 / 신 6:16

연번	성경구절	구분	내용	비고
50	마1:25	부분변개	[개,N]아들(a son), [흠]그녀의 맏아들(her firstborn son)을 낳기까지; <i>마리아 송배를 원천차단</i>	마 12:46 이하
51	마4:6	"	[개,N]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흠] 너를 받들어 안저라도 네 발이 돌에; <i>마귀가 그의 말씀에 참가하고, 그의 말씀에 모든 길에서 너를 자꾸게 해서리라)를 식재하여 인용함을 보여줌</i>	시 91:11-12
52	마9:18; 15:25; 18:26; 20:20; 8:2 등	"	[개,N]~절하고 가로되~, [흠]~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절과 경배는 엄청난 의미 차이 있음!	cf) 계13:4
53	마17:20	"	[개,N]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고(so little faith), [흠]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your unbelief)	논리상 불 신앙 책망
54	막1:2	"	[개,N]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흠] 대언자들의 글에	말8:1, 사40:3
55	막1:14	"	[개,N]하나님의 복음, [흠]하나님의 왕국(kingdom)의 복음	왕국!
56	막13:5-6	"	[개,N]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I am he)' 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흠]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 속이리라.	거짓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57	눅2:33	"	[개,N]그 부모가, [흠]요셉과 그의 어머니가	처녀탄생
58	요1:14, 18	"	[개,N] 독생하신 하나님(God the One & Only), [흠]독생자(The only begotten (Son)); <i>[개]에 따르면 예수님은 낳은(창조된)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쉬움, [K]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유일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분으로 신성 강조</i>	예수님의 신성-스스로 계신 분
59	요3:36/히3:18	"	[개,N]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reject) 자는 영생을/곧 순종치 아니하던(disobeyed) 자에게 아니나, [흠]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K]는 일관되게 '믿음과 믿지 않음' 이 구원/약속상속 여부를 결정함을 보여줌	믿음의문제 (요3:15-16 히3:19), 행위x
60	요9:35	"	[개,N]내가 인자(the Son of Man)를 믿느냐, [흠]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i>예수님은 자신을 인자(사람의 아들)로 소개하시는 하였으나 구원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구주)로 믿는에 달려있다</i>	그분을 누구라고 믿느냐
61	요17:11	"	[개,N]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흠]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i>양태론과 예수유일주의의 교리적 이단이 잘못됨을 분별</i>	삼위일체의 이해
62	요21:15-17, 마16:17	"	[개,N,NASB]요한의 아들(son of John) 시몬아?, [흠] 바요나(son of Jonah) 시몬아	성경 일치
63	행17:22	"	[개,N](아테네의 형상 숭배자들이)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을 미화

			(religious), [흠](-)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superstitious).	
64	롬5:15	"	[개,N]그러나 이 은사(the gift)는, [흠]그러나 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the free gift)은	은혜의 강조
65	롬10:17/14:10	"	[개,N]그리스도의 말씀/하나님의 심판대, [흠]하나님의 말씀/그리스도의 심판석; 교리상 분명히!	계20:11, 고후5:10
66	롬14:21	"	[개,N]~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흠]~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구체적인 부분을 1번개×
67	고전9:27	"	[개,N]내 몸을 쳐(beat my body), [흠]내 몸을 억제하여(keep under my body) ; 말씀에 복종은 '자학' 이 아님	바른 순종의 방법
68	갈5:12	"	[개,N]스스로 베어버리기를; <거세/신체절단>의미, [흠]아예 잘려 나가기를; <출교/교제단절>의미	고행강조 [교리] ×
69	갈5:22	"	[개,N]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흠]성령의 열매는 ... 믿음 과	성령의 열매
70	엡3:9	"	[개,N]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흠]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71	엡5:9	"	[개,N]빛의 열매는...에, [흠]성령의 열매는...안에	정확히
72	빌2:6	"	[개,N/새번역](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equity)으로/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흠](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robbery) 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의 장반대 의미 해석!	예수님의 신성 이해에 큰 차이
73	빌3:3	"	[개,N]성령으로 봉사하며, [흠]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정한 활례자
74	빌4:13	"	[개,N]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흠]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정확성
75	딤후3:16	"	[개,N]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흠]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정확성
76	고후1:14/히3:6	"	[개,N]너희의 자랑이 되는/자랑을 끝까지 붙들면, [K]너희의 기쁨이 되는/기쁨을 끝까지 붙들면	정확성
77	골1:24	"	[개,N]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흠]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주님은 구속을 위한 모든 고난을 치르심 - 더 이상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 고통을 치를 필요 없다!	사52:14, 히9:12,26,28; 10:10 등
78	딤후6:20	"	[개,N]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 [흠]거짓으로 과학(science) 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과학은 모순× 거짓으로 과학인 것 처럼 불리는 것(진화론, 유전자결정론, 빅뱅이론 등)을 유의	히10:26 롬10:2, 딤후2:4, 호4:6등
79	딤후2:15	"	[개,N]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correctly handle) ~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흠]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rightly dividing) ~나타내도록 연구하라(study) .	가르치는 자의 준비 자세
80	히3:16	완전번개	[개,N]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all those Moses led out of Egypt), [흠]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다 그리하지는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수아, 갈렙, 여린것들>	논리성, 정확성
81	히10:34	부분번개+삭제	[개,N]결박 중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더 좋고 영구한 소유~, [흠]결박 중에 있는 나 를 너희가 불쌍히~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	하늘의 의복, 사도 바울의 삶
82	유7	부분번개	[개,N]~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흠]~ 낯선 육체 (strange flesh)를 따라가다가~; 천사(남성)을 가리킴	정확성
83	요일4:3	"	[개,N]예수를 시인하지, [흠]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성육신의 진리!	요일7
84	벧전2:2	"	[개,N]순전하고 신령한 것...구원에 이르도록, [흠] 말씀의 순수한 것...성장 하게 하려 하려	기독교리를 혼동
85	계15:3/계21:24	"	[개,N]만국의 왕/만국이 그 빛, [흠]성도들의 왕/구원받은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보편적 구원×

연번	성경구절	구분	내용	비고
86	마17:21(없음)	완전삭제	[개,N]× [흠]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 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 24:35 위반
87	마18:11(없음)	"	[개,N]× [흠]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노라.	주의 마음
88	마23:14(없음)	"	[개,N]× [흠]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걸치레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주의 엄정한 심판
89	막9:44(없음)	"	[개,N]× [흠]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강조 (2번째)
90	막9:46(없음)	"	[개,N]× [흠]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강조 (3번째)
91	막11:26(없음)	"	[개,N]× [흠]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24:35 위반
92	막15:28(없음)	"	[개,N]× [흠]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대 언 (예언)성취
93	눅17:36(없음)	"	[개,N]× [흠]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대 환란시 상황설명
94	눅23:17(없음)	"	[개,N]× [흠](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예언성취
95	행8:37(없음)	"	[개,N]× [흠]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받을 수 있느냐 , 하니 내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 하니라.	구원론의 핵심, (유아)세례??
96	행15:34(없음)	"	[개,N]× [흠]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정황설명
97	행28:29(없음)	"	[개,N]× [흠]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유대인의 메시아 논쟁
98	롬16:24(없음)	"	[개,N]× [흠]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삭제×
99	마5:22	부분삭제	[개,N]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흠]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 화를 내신 예수님은 까닭 없이 화를 내신 분인가 또한 사람의 이유 있는 화를 내거나 의분은 잘못된 것인가	정당한 화(분노)
100	마9:13	"	[개,N]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흠]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생명을 얻는 회개
101	마9:17, 마2:12:6:33, 눅21:4, 롬15:19, 갈1:15, 딤후6:17, 계4:5, 계21:4 등	"	[개,N]선한 이는 한 분이시라, [흠]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개,N]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흠]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 계신 (living)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음의 대상 [주]인 하나님 삭제함
102	마20:6-7	"	[개,N]~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흠]~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말씀 이해
103	마20:16	"	[개,N]~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흠]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이는 많으나 선정된 이는 적으니라	삭제×
104	마20:22	"	[개,N]~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흠]~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잡기에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삭제×
105	마26:28, 막14:24	"	[개,N]~나의 피 곧 언약의 피 니라, [흠]~나의 피 곧 새(new) 상속 언약의 피 니라; 주님은 그냥 언약 x, 새 언약을 주심!	히브리서 참고
106	마27:35	"	[개,N]~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흠]~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겹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구약의 예언 성취하라 오신 그리스도
107	막7:15-16	"	[개,N]~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을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의 강조

108	막 10:21	"	[개,N]나를 좇으라, [흠] 십자가을 지고 나를 좇으라	삭제 x
109	막 10:24	"	[개,N]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흠]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확성
110	막 12:30, 롬 14:9	"	[개,N]~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흠]~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 여자가~	다시 일어남
111	눅 4:4	"	[개,N] x [흠]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삭제 x
112	눅 4:8	"	[개,N] x [흠]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삭제 x
113	눅 9:55-56(☆)	"	[개,N]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흠]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복음의 핵심을 삭제 x
114	눅 23:33	"	[개,N]해골이라는 곳, [흠] 갈보리 라 하는 곳	잘 보존
115	마 23:8, 눅 4:41, 요 6:69 , 행 6:31, 롬 3, 16 등	"	[개,N]주, 복음, 아들 등, [흠]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등	그리스도 임 강조
116	요 3:13	"	[개,N]인자 외에는, [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신성강조
117	요 6:47	"	[개,N]믿는 자는 ~, [흠] 나를 믿는 자에게는 ~	믿는대상
118	행 4:24	"	[개,N] x [흠]주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삭제 x
119	행 15:24	"	[개,N]~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흠]~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정확성-중요 부분 삭제 x
120	행 24:6-8	"	[개,N]~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그를 심문하시면~, [흠]~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게 나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게서 진히 그를 심문하시면~	너무 교묘하게 구체적 정황을 삭제 x
121	롬 9:28	"	[개,N]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 내시리라, [흠]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중요 부분 삭제 x
122	롬 11:6	"	[개,N] x [흠]~그러나 만일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삭제 x
123	롬 14:6	"	[개,N]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 [흠]~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자유함 가운데 주를 위해!!, 절기 중시??
124	롬 14:29	"	[개,N]~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흠]~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복음의 진리도 인한 복(정확성)
125	고전 6:20	"	[개,N]~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흠]~그러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몸과 영이 모두
126	고전 7:39	"	[개,N]~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흠]~살아 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by the law) 매여 있도~	정확성
127	고전 10:28	"	[개,N] x [흠]~ 평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삭제 x
128	고전 11:24	"	[개,N]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흠]너희를 위하여 찢긴(broken) 내 몸이니	그리스도의 고난
129	고전 15:47	"	[개,N]~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흠]~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the Lord) 시니라	그분의 신성
130	고후 11:3	"	[개,N]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에서 떠나, [흠]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simplicity) 에서 떠나	복음의 단순함
131	갈 3:1	"	[개,N]~누가 너희를 꾀더냐, [흠]~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정확성
132	갈 3:17	"	[개,N]미리 정하신 언약, [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계획
133	갈 4:7	"	[개,N]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주의공로/중보역할

			[흥]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134	갈6: 15	"	[개,N]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흥]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할례 여부가 의미가 있음!	삭제 ×
135	엡3: 14-15	부분삭제	[개,N] × [흥]~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삭제 ×
136	골1:2, 마15:13, 마8:29, 갈3: 16, 딤후2:7 등	"	[흥]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의 이름이 오는 그 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성
137	골 1: 14	"	[개,N]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흥]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 개혁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를 약화	예수님의 피 중시 (강조)
138	골2: 18	"	[개,N]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흥]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	정반대
139	골3:5-6	"	[개,N]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흥]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엡 5: 6와 짝을 이룸
140	딤후3:3	"	[개,N]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 [흥]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삭제 ×
141	딤후6: 10	"	[개,N]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흥]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타락/부패의 결과
142	약4:4, 딤후5: 16	"	[개,N]간음하는 여자들이여, [흥]너희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들 아	남녀동등
143	벧전 1:22	"	[개,N]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흥]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주의 뜻-정확성
144	요일5:7	완전삭제 + 변개	[개,N]-, [흥]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분은 하나 이시니라 ;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다르시나 한 하나님!	Trinity의 명확한 규정
145	요일5: 13	부분삭제	[개,N] × [흥]~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삭제 ×
146	요일5:20, 계1: 18 등	"	[흥]이편이 총 78회 나옴, [개,N]은 20회 이상 삭제	아멘무시 ×
147	마25:31, 살전5:27, 벧후1:21, 계18:20, 22:6 등	"	[개,N]모든 천사/형제, 사람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등, [흥]모든 거룩한 천사/형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 등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
148	계 1: 11	"	[개,N] × [흥]나는 일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삭제 ×
149	계2: 15	"	[개,N] × [흥]~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주의 마음
150	계 11:17	"	[개,N]예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흥]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	주의 재림 강조
151	계 13:8	"	[개,N]죽임을 당한 어린양, [흥]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창세 전에 작정된 것이며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α ~ ω
152	서신서 추신	완전 삭제	예 1. 디모데후서 4장 22절 다음 바울이 너로 앞에 두 번째 불러갈 때(첫번째 불러갈 때 딤후4:16); 처한 상황, 예 2. 히브리서 13장 25절 다음 - 이탈리아에서 디모데 편으로: 지지추정	보낸 자와 처한 상황 이해

II. 오역된 부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감(호흡)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말씀들(딤후3:16)의 각 단어 하나하나 는 모두가 정확히 번역(translation)[축자적(형식적) 일치 번역]되어야 그것들을 읽는 이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개역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미만 같게 번역[동적 일치 번역; 의역이 대표적]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다소간 빠뜨림으로써 그 단어들 속에 있는 고유한 의미를 제거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리게 한다.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은(기록·보존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다(롬3:1-2). 그 들을 통해서 성경의 거의 모든 기록들이 단어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보존되었고 마지막 사 도이자 유대인인 요한을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종료되어 AD 100년경에 드디어 성경이 완 성이 되었다. 따라서 성경의 번역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았던 유대인들의 신앙적 사고체계와 유대 문화에 적합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성경이 번역되어 보존되는 것이 당연하다 고 하겠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적 사고체계나 유대 문화를 바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유 대인 아닌 자들의 사고체계나 비유대적 문화의 영향을 배제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들을 번역해 놓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성경의 번역은 번역자(들)의 마인드와 역량(자질,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하다. 개역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들에 대한 번역자들의 인식의 부족과 아울러 번역 자들의 역량의 한계로 말미암아 많은 번역상의 오류들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글킹제임스 성경(말씀보존학회 발간)을 시작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에 알려진지는 약 20년 정도(2010 년 현재)된다. 하지만 한글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의 마인드와 역량의 한계가 다소 있었 던 관계로 제대로 된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다소 있고 해당 번역자들의 개역 성 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배태적인 태도로 교회 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킹제임스 흠 정역 성경(그리스도예수안에 발간)은 번역자들의 면밀한 연구와 검토, 그들 간의 긴밀한 협력 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한 영어킹제임스 성경의 진가를 우리말로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개역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역된 부분들과 그로 인한 문제 점을 정리해보려 한다.

번	제목	내용
1	예언(선지자) vs 대언(자)	☞ 관련 구절: 창20:7, 삼상9:9, 고전12-14장, 뵤전1:20-22, 데전 5:20 등 성경 전반에 걸쳐 500회 이상 기록된 부분들 ■ Prophecy라는 말의 영어킹제임스 완성 당시 본래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하는’ 대언(代言)을 뜻한다. 또한 대언은 예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개역성경도 부득이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한 곳이 있다(출7:1, 겔 37:4, 계19:10 등 10곳). ■ 아벨은 앞날을 예언한 적이 없다. 즉 형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뜻)을 전하여 죽임 당한 대언자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그를 선지자로 번역한 모순을 범한다(목11:50-51). 이것은 앞날을 예언한 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이다(창20:7). 둘째,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대신 전하는 것)하였다. 성경 기록들도 대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개역성경으로는 이러한 것이 대언(예언이 아닌)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알 길이 없다(뵤후1:20-21). 셋째 개역성경은 고전12-14장에서 예언, 선지자로 번역하여 기복무속신앙, 일명 기독교 무당을 부추기고 있다.
2	나라(천국) vs 왕국	☞ 관련 구절: 단2:44, 마3:2;2:2;4:17;6:10;24:13-14, 막1:1, 14, 눅17:20-21, 행1:6 등 성경 전반 ■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즉 하나님의 의도(계획)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중국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지상천년왕국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따

		<p>라서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된 메시아(그리스도)는 유대인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그들이 소망하는 왕국은 유대인을 구속하여 세울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이었다(단2:44 등 구약 성경의 예언들, 마15:24-수로보게야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눅1:32-33-다윗의 왕좌, 눅2:38-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림, 행1:6-제자들의 소망 등).</p> <p>■첫째, 개역성경은 이를 왕국 이 아닌 나라 또는 천국 등으로 번역하여, 특히 복음서에서 나온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우선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복음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무조건 적용하는 아시리엘 대체 신학이 주를 이루게 하여 성경의 중심 주제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이후, 승천 바로 순간 그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믿는 유대인 제자들이었다. 그들의 소망은 다름 아닌 주님이 속히 재림하여 유대인들을 구속하여 그들을 위한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성경 예언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이방인들의 구원 여부는 전혀 생각지 않고서)라고 물은 것이다(행1:6). 둘째,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모르니까 주기도문의 '나라'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대인의 메시아 왕국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죄를 진 자들을 사하여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믿는 이방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임)를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 셋째, 많은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은 그리스도 주님은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과 상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마23:37-39). 그들의 배척으로 밀미암아 메시아 왕국의 건설은 연기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흘러간 것이다(롬11:11-14, 26 등).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은 엄밀히 따지자면 메시아 왕국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구원(천국)의 복음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믿는 이방인에게도 미침에 따라 믿는 이방인들도 메시아 왕국에 그들과 함께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 셈이다. 넷째, 개역성경은 왕국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으로 번역(마24:13-14)하여 지금 모든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하면 그분께서 더 빨리 오실 것이라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해)을 바탕으로 열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 스라엘이 영토를 회복(1948년)한 이후로는 주님은 언제라도 속히 오실 수 있으시다(마23:38-39;24:32-33 등). 다섯째, 개역성경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자주하신 강팍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였다(눅17:20-21).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 바리새인들도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천국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는 인본주의적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주님은 왕국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한다. 즉 하나님의 주관적 심판이 임했다는 뜻이다. 주님은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서지게 하거나 그들을 가루로 만들 돌아라고 하셨다(마21:42-44). 이처럼 단어 하나 차이로 전혀 엉뚱한 해석도 나오게 된다.</p>
3	여호와 vs 주(主)	<p>☞ 관련 구절: 구약성경 전반(6,400회 이상)</p> <p>■스스로 있는 자를 뜻하는 '여호와(YHWH)'(출3:14, 요8:58) 이름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한 이름이다(출3:14-16,6:2-8).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이에 대한 계명(출20:7)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두렵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그분의 두려운 이름 여호와(YHWH)를 대할 때에는 눈으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읽을 때는 주(主)를 의미하는 아도나이(Adonai)로 읽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여호와 대신에 주(LORD)로 이를 표기했으며, 특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등에 많이 나오는 '여호비'라는 단어도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GOD)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여기지) 않도록 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110:1을 인용한 마22:44 말씀 주(LORD;큐리오스)께서 내 주(Lord)께~).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에서도 시110:1과 마22:44에서 동일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다. 영어의 Jehovah는 YHWH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은 만</p>

		<p>든 'YahvVah'를 음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ASV(미국 표준역, 1901)처럼 주(LORD) 대신에 여호와로 그대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버이 여기계끔 하고 있다.</p> <p>또한 교리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 구약의 주(LORD)를 여호와로 표시하면 '주의 날' 즉 재림에 관한 개념이 변하게 된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과는 달리 개역성경이 동일한 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번역하면 우선 그것들이 동일한 날인지를 독자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다(욥2:31과 행2:20절 비교).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대언자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이 실제 유대인을 연단하기 위한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 살전5:2, 뱀후3:10 등)라는 개념이 부족하며 따라서 교회의 환난 전 휴거와 주님의 천년 재림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다. 따라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자기 학대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 중시의 억압된 믿음에서 복된 소망인 환난 전 휴거를 담대히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도 없지 않게 있다.</p> <p>뿐만 아니라, 구약의 주를 여호와로 표기하면 구약의 여호와(스스로 있는 자)가 신약의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독자가 잘 알지 못하게 한다. 구약의 여호와는 곧 신약의 예수님이다(욥2:32, 롬10:13, 말3:1, 요8:26). 말라기 3장 1절 등에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 는 약속을 친히 하셨는데 개역성경은 독자로 하여금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p>
4	영(spirit;루아흐), 혼(soul;네페쉬)	<p>☞ 관련 구절:창2:7, 눅12:20, 고전15:45 등 성경 전반</p> <p>■ 성경에서 혼이나 생명체로 쓰인 '숨을 쉬다(호흡하다)' 라는 뜻의 나파쉬에서 파생된 네페쉬 단어는 호흡하는 사람(생명체)을 뜻하는데, 이 단어가 혼(soul)으로는 475회, 생명체(life:창1:21[창조물]:6:17; 7:15;7:22 등)로 117회 사용되었다.</p> <p>■ 개역성경은 대부분 혼(soul;네페쉬)을 '살아있는 인격체로서의 사람' 으로 인정하지 않고(개역성경도 일부이지만 혼을 '사람' 으로 제대로 표현하기도 함 -창46:27, 출12:15, 수10:28, 행2:41, 행27:37 등) '사람의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일부분' 으로 이해하거나, 전반적으로 영과 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부득이 하게 영과 혼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구분을 했다(히4:12, 살전5:23 등)). 이 때문에 개역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혼(soul)을 영혼, 마음, 심정 등으로 일관성 없이 번역(시26:9, 눅12:20, 삼상1:15, 욥7:11, 시26:9 등)하거나 혼은 사람 자체라기보다는 사람을 구성하는 일부분(정신활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때만 '혼' 으로 번역했다(창35:18, 왕상17:22, 시57:4 등 성경 전반). 심지어 짐승의 영(spirit;루아흐)을 짐승의 혼으로 엉뚱하게 번역(전3:21)해 놓기도 했다. 특히 죽은 자를 유혼이라고 번역(시88:10)하고 또한 영을 유령이라고 번역(마4:26)하여 유혼이나 유령의 존재를 인정한다. 또한 영(spirit)을 마음, 중심, 신, 유령 등으로 표현하여 그 실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성 없이 번역하였다(삼상1:15, 욥7:11, 시26:9, 사42:1, 마14:26 등).</p> <p>이에 반해 [흙]은 살아있는 생명체 또는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혼(soul)' 으로 일관성 있게 번역하였다. 또한 사람이 죽을 때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분리된 혼이 그 사람의 실체(진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혼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마음, 심정 등은 독자가 혼의 구성 활동으로 이해되도록 번역한 것이다. 영(spirit)은 문자 그대로 영으로 번역하였으며 또한 영과 혼을 구분하여야 할 곳에서는 구분하여 번역을 하였다.</p> <p>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영, 혼, 육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p> <p>[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p>

		<p>사람의 생령이 되니라. [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육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영의/영적 호흡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soul]이 되니라.</p> <p>개역성경과 같이 혼을 생령으로 번역해 놓으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처럼(눅24:39), 아담은 생령이 되어 살과 뼈가 없는 존재가 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아담은 분명 그렇지 않다(창2:21,23)</p> <p>그리고 [흠] 창세기 2장 7절에서 혼은 살아 있는 생명체(인격체)로서 영 혼·육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28절의 사람들은 창세기 2장의 아담, 이브와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이중아담론의 주장이 있는데, 창세기 1장의 무령 인간들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약2:26)처럼, 영이 없기에 살아 있을 수 없게 된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숨[영적 호흡]을 부여받지 못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인격체), 즉 혼[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숨을 부여받은 아담과 아담으로부터 나온 이브다. 또한 글의 논리적 흐름 상,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좀 더 부연하거나 상세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흠] 창 5장 1-2절에서는 최초의 인간, 즉 창세기 1장26-28절의 인간이 '아담(Adam)'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NIV와 개역성경 등은 이를 '사람(man)'으로 번역하여 성경 해석에 혼란을 주고 있다.</p>
5	한 분 하나님 vs 한 하나님	<p>☞ 관련 구절: 딤후2:5, 6:15, 약2:19 등 성경 전반</p> <p>■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특이한 것이며, 이 교리와 관련하여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 삼위일체에 대한 적절한 비유는 시간(과·현·미), 모든 물체(갈·너·높), 사람(영·혼·육)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삼위의 각 하나님은 각각 인격과 사역을 가지고 계시나 그분들 모두는 한 하나님이시다.</p> <p>개역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오역을 해서 표현해 놓은 반면, [K, 흠]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을 세 분으로 그리고 이 세분이 모두 동등하며 한 하나님[주]임을 표현한다([흠]요일5:7, 스6:4)</p> <p>특히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개역성경의 변경된 부분 즉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근거로 예수유일주의(아버지도, 성령도 예수라는 해석)나 양태론(관계 속에서 여러 형태(모양)로 변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는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생겨나게 했다.</p>
6	하나님의 신 vs 하나님의 영	<p>☞ 관련 구절: 창1:2, 삼상10:10, 사6:34, 롬8:29 등 성경 전반</p> <p>■성령님(The Spirit)은 구약성경에 28회 나오지만 개역성경은 성령(님)을 거의 다 '신'으로 번역하여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을 다르게 표현할 특별한 성경적 근거가 없음에도 다르게 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역성경의 여호와의 신(god of God)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성경에도 없는 어법을 초월한 표현이다. 또한 성령(님)은 강림하시는 분인 것으로 번역해 놓았다. 이는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기독교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 신이 내린다는 강신의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성령님도 그렇게 이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 사람들이 사용하던 표현인 성신은 틀리며 성령이 맞는다. 아울러 개역성경은 신약성경에서도 성령에 관한 일관된 표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영(the Spirit of Christ)'으로라는 표현으로 통일되어야 한다.</p>
7	언약 vs 상속 언약	<p>☞ 관련 구절: 예1:6, 스8:28:4:20, 125:34, 26:28, 막14:24, 눅22:20, 롬8:14-17, 고전6:9; 11:25, 히1:2-4:6:12, 17:9:15-18:12:17, 계21:7 등 성경 전반</p> <p>■ '상속'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유대인이든 신약의 성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p> <p>언약으로 번역되는 covenant는 '특별 약속'을 의미하며, 반면 상속 언약으로 번역된 testament(신약에 14회)는 원래 '증거로서 주는 언약'을 의미한다. 그</p>

		<p>분께서 담당하신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증언하시므로 [흠]에 의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로 세우신 영존 하는 언약은 단순히 '새 언약' 이 아닌 '새 상속 언약' 이 되는 것이다.</p> <p>상속(inheritance)' 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흠]은 상속함, 상속 재산, 상속 유업, 새(첫) 상속 언약(testament), 상속자, 상속을 통해, 상속 언약자 등으로 상속을 강조하여 일관되게 번역한 반면 개역성경은 얻게 함, 기업(으로 얻음), 유업, 새(첫) 언약, 후사(後嗣), 기업으로 받는 자, 유언 등으로 '상속' 이라는 단어를 통일되게 번역하지 않아(예1:6, 히1:4 등) 상속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testament의 심오한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은 '유언' 으로 번역하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히9:16-17). 유언은 창조물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p>
8	사자 vs 천사	<p>☞ 관련 구절: 마25:41, 창19:5, 유7, 마28:2-4, 눅24:4, 왕하 19:35, 학 1:13 등 성경 전반</p> <p>■ 사자인지 천사인지 명확하게 구별하여 번역하지 않으면, 우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의미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NIV 등도 주의 천사와 마귀의 천사들을 제대로 구분하여 번역하였는데, 개역성경은 마귀의 천사들을 마귀의 사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어(마25:41 등) 때론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물론 개역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된 부분들이 있는데 모두 천사(angel)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개역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중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왕하 19:35 등)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사자(使者) 즉,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 전령(messenger), 대언자)도 있다. 예를 들면, 대하 36:16에 나오는 사자들(the messengers of God)은 대언자, 학 1:13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언자 학개를, 말 2:7에 사용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제사장을 의미한다.</p> <p>또한 성경의 천사는 모두 남자(마28:2-4, 눅24:4, 행10:30 등) 이며 아기 천사, 여자 천사 등은 성경을 통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어 성경들에는 천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man' 혹은 'men' 즉 남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천사를 '사자' 나 '사람' (창19:5, 눅24:4, 행10:30 등)으로, 또는 '다른 색(유7)' 으로 번역하여 천사가 남자임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p> <p>바른 성경이라면 천사(영적 존재 angel)나 사자나를 바르게 나누어 번역하고 천사를 남성(유7;창19:12 등)으로 번역해야 한다.</p>
9	여호와의 사자 vs 주의 천사	<p>☞ 관련 구절: 창 18:1-19:1;22:11-18; 31:11-13; 32:24-30; 출3:2-6; 23:20; 사2:1-23; 6:20-22; 13:16-22, 행7:30-38 등 성경 전반</p> <p>■ 성경학자들(주석가들)에 의하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the angel of the LORD)" 또는 "하나님의 천사(the angel of God)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천사로 구약시대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자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큰 계획을 수행하였다(사63:9)고 한다.</p> <p>"주의 천사(the angel of the Lord)" (개역성경도 이를 주의 천사로 번역)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에도 나타난다(마28:8). 이런 점으로 보아 "주의 천사(the angel of the Lord)" 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존재는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 중 한 명,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말씀한 천사, 아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같은 특수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주의 천사는 특별한 천사(하나님의 특별 대리 임무(특별 위임)을 부여 받은 천사)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방하다. 이런 "주의 천사"는 당연히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는 달리 특별한 지위와 권능을 지닌 존재다. 특히 영어킹제임스 성경이 lord와 LORD, god와 GOD, spirit과 Spirit을 구별해서 표기한 것처럼 이 특별한 천사도 대문자 Angel로 표기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는 있다(창48:16, 출 23:20, 출 32:34).</p>

	<p>개역성경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거나 하나님의 특별 대리 임무를 부여받은 이 특별한 천사를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혹은 천사 (Angel)로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 또는 일반 “천사(angel)”로 번역하여 구약성경을 읽을 때 이 특별한 천사를 알 수 없게끔 하였다.</p>
<p>10 귀신 vs 마귀</p>	<p>☞ 관련 구절: 마4: 24, 고전10:20 등 주로 신약 성경 전반</p> <p>▣성경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불교에서 말하는 음부니 구천이니 하는 (허구의) 장소가 아니다(눅9장, 16장 참고). 웨스터 영어사전은 ‘마귀’와 ‘귀신’의 개념에 대해 예리하게 구별하고 있다.</p> <p>귀신(demon): 고대 이교도들의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 존재. 고대 사람들은 악한 귀신과 착한 귀신이 있어서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고, 그래서 귀신들을 숭배했으며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고 믿음</p> <p>마귀(devil): 기독교 신학에서 악한 영 또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또는 이런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가리킴</p> <p>▣그리스, 이집트, 인도, 중국 등지에서 ‘유혼’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떠돌아다니는 영혼(귀신)이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이 혼백사상이나 무속사상과 같은 샤머니즘이나 불교 등의 이교도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마귀로 번역해야 하는데 귀신으로 번역을 한 것이다. 개역성경은 한편으로는 ‘사신’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번역(시106:37)한 반면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말을 ‘마귀’라고 번역(신32:17)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p> <p>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제사(sacrifice)라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과거 조상귀신에게 했던 제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악령들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소제, 화물제 등도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제사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또는 ‘희생물’로 바꾸어 번역해야 할만한 것이 된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시대의 각종 헌물이나 희생물 등을 제사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또한 신약 성경도 온통 제사로 번역할 함(마12:7 등) 상기한 바와 같이 샤머니즘이나 이교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 <p>▣구약성경에 바탕을 둔 유대교나 (AD30~100년 사이의) 초대교회 기독교 관념에서는 유령이나 유혼 등과 같은 개념이 성립할 수 없으며 마귀들도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표적을 보이실 때, 마귀들이 갑자기 정체가 바뀌어 귀신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추가로 마귀들을 쫓아내실 때 ‘그냥 나오라고 명령했지’ 결코 그들에게 이러 저러한 질문들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마귀들이 나오라는 명령에 요동칠 때 한 마디 물으시거나 그들이 간청할 때 허락해 버리시거나, 혹은 뭐라고 지껄이니깐 잠잠하고 나오라고 꾸짖으셨을 뿐이다. 또한 예수님과 특별 임무를 맡은 사도들은 정신 줄을 놓은 광폭해진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마귀들을 쫓아내었다(막9:14이하; 눅8:26이하; 행16:16이하).</p> <p>현상학적으로 마귀들이나 귀신들(?)에 관한 어떤 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여러 체험에 맞추어 성경의 진리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들은 인간의 체험여부와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이다. 그러나 체험을 중시하다 보면 그 체험이 기준이 되어 성경의 진리를 인용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자에게는 체험 여부는 일종의 보조적인 것이지, 인간의 체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들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며(롬1:16-17), 보는 것으로 걸지 않는다(롬5:7).</p>

11	그 vs 그분	<p>☞ 관련 구절: 마4:5;4:8;27:28,35 막1:12;14:50,55, 눅4:5, 요1:40;2:3, 24;4:1, 롬5:2, 고전15:49, 고후4:10, 히2:9;12:2 등 신약 성경의 전반</p> <p>▣개역성경은 예수님을 '예수' 또는 '그' 로, 그분을 '그' 로 대책없이 번역하였다. 경건한 유대인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를 공경하였다. 따라서 우리 민족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보내신 분, 즉 사람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존칭을 써야 마땅하다(요5:23 등).</p> <p>▣아울러 '임마누엘' 은 히브리어에서 처음 언급된 말(사7:14,8:8)인데, 성도 마태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다(마1:23).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로 번역한 있는 반면, [흠]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으로 번역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예수님+ 하나님)을 정확히 증언하고 있다. 또한 개역성경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것' 으로 번역한 반면 [흠]은 '생명을 주는 자' 로 번역하였다(요6:33). 신성을 가지신 인격적 존재를 어찌 물건 취급하듯이 번역할 수 있는가?</p>
12	절하는가 vs 경배하는가	<p>☞ 관련 구절: 마 14:33, 요9:38 등</p> <p>▣마태복음 4장 10절은 창조물들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오직 한 하나님([흠]요일 5:7)뿐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 중 한분, 정확한 형상골1:15;히1:3;요14:7;요일5:20 등)이시므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서 경배를 받으신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대신에 '절하는 것' 으로 번역을 잘못하였다. 경배(worship)와 절(kneel)은 그 의미가 완전 다른 것이다.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옹과 그 짐승에게는 동일한 그리스어를 그대로 '경배하다' 로 번역하였다(계13:4).</p>
13	하나님이 후회하고 뉘우치는가	<p>☞ 관련 구절: 창6:6, 민23:19, 스펜8:14, 삼상15:35, 삼하24:16, 신32:36, 롬11:29, 히7:21 등 성경 전반</p> <p>▣Repent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에서 유래하여, '아쉽다, 유감스럽다, 후회하다, 뉘우치다, 회개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그리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신중하게 번역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repent의 발전된 의미를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하여 하나님도 사람처럼 후회하거나 뉘우치거나 한탄하시는 분으로 번역을 했다. 반면 [흠]은 repent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뜻을 돌이키시다(민23:19 등)', '슬퍼하시다(삼상15:35, 창6:6 등)' 으로 표현하여 그분의 신성을 존중하려고 했다.</p> <p>주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심판과 형벌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오시(7:12), 합당한 대속물을 가지고 나아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긍휼에 따른 죄들의 사면을 통해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God should not repent."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약속, 구속의 계획에서는 조금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But God repenteth of the evil when the sinner repenteth."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할 때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p>
14	영원한 vs 영존하는	<p>☞ 관련 구절: 마18:8; 25:41, 살후1:9, 요3:15-16, 히13:20 등 성경 전반</p> <p>▣성경에서 '영원한(eternal)' 이라는 단어는, 질적인 차원에서,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옥의 불은 현실 세계 속의 일시적인 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꺼지지 않는 불로 이해된다. 반면 '영존하는(everlasting)' 이라는 단어는, 양적인 차원에서, 무한정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옥의 불은 그 기간이 실제 끝없이 지속되는 징벌의 불로 이해된다. 특히 '영존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의 '영혼멸절설' 과 같은 이단 교리가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다.</p> <p>▣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우선 상기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 언급하신 말씀들이 (부분) 삭제되어 있어서 지옥의 실상에 대한 두려움을 덜 갖게끔 하고 있다(막9:44,45,46,48). 그리고 개역성경은 '영원한' 이라는 단어와 '영존하는' 이라는 단어를 구분 없이 모두 영원한, 혹은 영영한(미25:41)으로 단순하게</p>

		<p>번역하여 천국과 지옥의 실상에 대한 인간의 관념을 약화시키고 있다.[흠]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천국(영생)과 지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p> <p>~네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리라(마8:8),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형벌에 들어가라(마25:41/46) ...</p> <p>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eternal)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everlasting)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5-16).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everlasting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히13:20)</p>
15	음부 vs 지옥	<p>☞ 관련 구절: 신32:22, 시 116:3, 잠9:18; 15:11, 막:45,44,46,48, 행2:31, 계20:14 등 성경 전반</p> <p>▣땅의 감옥을 뜻하는 지옥(地獄)은 성경에 54회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중에 구약에 나오는 31번의 지옥을 모두 '음부 또는 스올(Sheol)'로, 심지어 무덤을 뜻하는 스올도 무덤이 아닌 '음부'로 잘못 번역(창42:38, 사31:17;49:14 등)을 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13번은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부(그리스어 Hades)'로 번역(행2:31, 계20:14 등)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어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 아니면 지옥으로 갔으며(눅16:19-31),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 즉 천국으로 옮겨졌으나(엡4:8-10; 고후 5:8; 12:2-4; 히11:40), 지옥은 여전히 지옥으로 남아 있다.</p> <p>그런데 음부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말 큰 사전은 음부는 저승인데 저승은 '죽은 혼령이 가서 사는 세상으로 구천, 유명'이라고 말한다.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번역할 당시 불교나 사대니즘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지옥을 지옥으로 번역하지 않고 '음부'나 '유명'으로 번역을 했다(잠15:11, 행2:31, 계20:14 등). 반면 [흠]은 성경 전반에 걸쳐 hell은 모두 지옥으로, grave은 무덤으로 정확하고 일관되게 번역을 해서 지옥에 대해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p> <p>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후 땅의 심장부인 지옥과 낙원(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모두 땅 속에 있었으므로)에 갔다 오셨다(마12:39-40, 엡4:8-10). 그런데 NIV와 개역성경과 같은 현대판 번역본들은 지옥의 실상에 관하여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는 부분 삭제, 9장 44,46절은 완전 삭제를 해버렸다. 지옥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에 해당되어 주님께서 지옥의 실상에 대해 연거푸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삭제를 해버린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짙은 행위라 하겠다.</p> <p>지옥은 '한농의 골짜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게헨놈에서 파생된 그리스어 게헨나(Gehenna)를 번역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집행될 곳은 마지막 원수인 사망과 지옥도 던져질 불 호수(the lake of fire), 즉 게헨나이이며 그곳의 칠혹같은 어둠(마8:12; 22:13, 유13, 벧후2:17 등) 속에서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그리고 영원히 겪을 고통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p>
16	신령과 진정 vs 영과 진리	<p>☞ 관련 구절: 요4:23-24</p> <p>▣개역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다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경배)하는 것을 자못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은 영적인 것에 어떤 신비한 것을 가미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우며 진정은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인간의 순수함, 정성, 열심 등을 더 중시하도록 이해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으로(in spirit), 그리고 진리로(in truth) 예배(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합당히 예배해야 한다.</p>
17	포도주 vs 포도즙	<p>☞ 관련 구절: 눅1:15(나실안-민6:3), 요2:1-11(혼인잔치의 기적), 롬14:21(음식), 딤후5:23(디모데의 병치료), 사13:4-7(삼손), 잠9:2, 신11:14, 대하 31:5, 느헤13:5 등</p> <p>▣Wine은 성경의 맥락에 따라 포도주 또는 포도즙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러</p>

		나 개역성경은 이를 제대로 구분 않은 채 대체로 포도즙을 포도주로 번역함으로써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방해를 주고 있다.
18	여자 감독과 집사	☞ 관련 구절: 딤후3:11 ■초대 교회부터 성경에는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긴 많은 여인들이 있다.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보기에 좋은 일이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직분은 목사(신약성경에서 감독이나 장로로 불리는데)와 집사 두 가지 뿐이며 여자는 이러한 직분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창조의 질서가 지켜지길 원하신다(딤후3:11-12). 그런데 개역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여자들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마치 여자들이도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번역했다. 심지어 NIV 등과 같은 현대 번역본들도 이곳을 '그들의 아내들도', 즉 '집사들의 아내들도'라고 정확히 번역해 놓았다. 아마도 이것은 특별히 한국 교회에 여자들의 활동이 아주 왕성한 것으로 보아서 여자 집사를 인정하기 위해 이런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19	그리스도를 믿음 vs 그리스도의 믿음	☞ 관련 구절: 갈2:16, 20, 히12:2, 약2:1, 계2:13 등 ■개역성경(NIV 포함)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faith in Christ)'이라는 표현들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the faith of Christ)'이라는 표현은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렵다. 반면 [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분하여 번역을 하였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과연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여 승리하게 되는 데에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견고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고난을 이기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받아서 소유하기 때문인가? 계시록 2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분의 믿음(my faith)을 부인하지 아니한 바깥 교회를 칭찬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마저도 결코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여 그 믿음으로 부활(휴거)과 영생복락의 영광된 삶과 하나님의 보상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서 모든 고난과 시련, 모든 죄와 악한 유혹들, 그리고 사탄의 힘을 이기게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사셨다(히2:13; 5:7-9; 6:19-20; 12:2 후반부 등).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신 주님이시요 또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시다(히12:2 전반부). 따라서 '그분을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1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0	악어 vs 리워야단(Leviathan)	☞ 관련 구절: 욥26:13;41:10이하, 사27:1, 시74:14; 104:26 등 ■개역성경에 표현된 악어는 과연 악어인지 리워야단인지 살펴보면 악어로 번역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잘못이다. NIV와 같은 다른 역본들도 리워야단으로 번역하였고, 또한 리워야단의 실체는 이사야 27장 1절에 날랜 뱀(piercing serpent), 꼬불꼬불한 뱀(crooked serpent)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번역을 해놓았다. - 1절: 뉘시 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 뉘시로 악어 잡아 가능 - 6절: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 악어를 잡아서 그 꼬리로 잔치를 벌일 수 있음 - 6절: 그들이 상인들 사이에서 그를 나누겠느냐? - 악어를 잡아서 나눌 수 있음 - 7절: 그의 머리를 물고기 작살로 채울 수 있겠느냐? - 악어는 작살로 잡을 수도 있음 - 19-21절: 리워야단의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 - 악어의 입에서는 불이 나올 수 없다. - 23-24절: 그의 살 조각들은 단단하여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 악어× - 25-30절: 강력한 자들의 공격을 무시한다. - 31-32절: 리워야단은 바다 생물이다. cf) 시104:25-26 참고 - 33-34절: 리워야단은 모든 교만한 것들의 우두머리다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 최고 - 시74편 14절: 리워야단에게는 머리가 여러 개 있다 - 개역성경은 '머리'로 번역함 - 사27장 1절: 리워야단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 리워야단은 사탄 또는 용을 상징
21	하마 vs 베헤못	☞ 관련 구절: 욥40:15 이하 ■개역성경에 표현된 하마가 과연 하마(hippopotamus)인지 베헤못(behemoth)인지 살펴보면 하마로 번역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NIV와 같은 다른 역본

		<p>들도 하마가 아닌 베헤못이라 번역하였는데, 왜 개역성경은 이러한 큰 실수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절: 자기 꼬리를 백향목 같이 움직이며 - 백향목은 크기 40m, 지름이 3m - 20절: 하나님의 길들(창조물) 중에서 으뜸이라 - 그래보다 작은 게 으뜸? - 23절: 자기가 요르단을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 - 하마들이 어찌?! - 24절: 그의 코는 올가미들을 꿰는노다 - 하마의 송곳니는 몰라도, 하마의 코는 × - 15절: 그(베헤못)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지구상에 존재한 초식동물 - 18절: 그의 뼈들은 강한 놋 덩이/쇠막대기 같으며 - 튼튼한 골격 구조를 가짐 - 20절: 산들은 확실히 그를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 엄청난 양을 먹은 것으로 추정 - 19절: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사람은 감히 ×
--	--	--

22	들소 vs 유니콘	<p>☞ 관련 구절: 민23:22;24:8, 신33:17, 욥39:9-11, 시22:21;29:6;92:10, 사4:7</p> <p>■NIV와 개역성경과 같은 현대 역본들은 유니콘(unicorn)이라는 실제 동물을 들소(ox)로 바꾸어 유니콘을 상상의 동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k]는 유니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뿔이 달리며 힘이 세서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동물로 표현하고 있다. 때론 유니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거나 다윗과 메시아에게 고난을 준 존재로도 등장한다. 유니콘은 성경 기록에 의하며, 욥의 시대, 발람, 모세, 다윗, 이시야(BC700년경) 시대에도 실존한 동물로 간주된다.</p> <p>- AD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자연에 대한 박식한 자' 라는 의미를 가진 띠 지올로구스(Physiologus) 라는 책이 등장하였고 이 책은 여러 가지 구전되어 오는 옛날 이야기를 편집한 책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유니콘은 순결한 처녀 앞에서는 양처럼 고분해진다고 하여 처녀를 미끼로 써서 유니콘이 잠이 들면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유니콘은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로 여기기 시작했고, 심리학자들 일부는 유니콘의 외뿔을 남성의 성기에 비유하여 이를 남성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힘에 대한 숭배, 남성의 성적 본능 등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주의에서는 강한 힘과 능력, 해독작용을 가진 뿔이 달린 유니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고, 그 유니콘을 순결하게 만드는 순결한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주장하며, 이를 마리아 숭배를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바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이나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영해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영지주의자들의 소굴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p>
23	일천번제 vs 번제헌물 천개	<p>☞ 관련 구절: 왕상3:4 vs 대하1:6</p> <p>■개역성경은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번역을 하였다(왕상3:4). NIV와 같은 현대 역본들은 일천 번제(thousand times offerings)가 아닌 천개의 번제 헌물(a thousand burnt offerings)로 정확히 번역을 했다.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부흥사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천 번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왔고 실제로 신자들도 그런 줄 알고 행해왔다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일천 번제와 그분의 지혜를 맞바꾸시는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더욱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번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번제 희생은 희생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죄 헌물, 화평 헌물, 범법 헌물과는 달리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헌물이 아니다. 이것은 주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p> <p>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에서는 일천 번제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거짓된 교훈이 만연하게 되었는가? 첫째는 교회로서는 일천 번제와 같은 헌금 제도를 통해 적지 않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일천 번제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천 번제라는 종교 의식은 '지</p>

		<p>성이면 감천' 이라는 한국인의 종교심에 아주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아주 미신적 종교행위일 뿐이다. 셋째,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고전15:10)가 아니라 내 행위, 내 공로에 의해 어떤 축복과 기도 응답과 같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내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기)복신앙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함께 나누는 연보가 언제부터인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헌금을 드린 만큼 비례하여 복을 받는다.", "십일조를 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여하신다." 등과 같은 (기)복 신앙을 서슴없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p> <p>한국의 목(회)자들이 솔로몬의 기드온 신당 번제 사건에 관하여 바르게 번역된 개역성경 역대하서 1장 6절을 확인한 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바른 신앙 양심을 갖으려 한다면, 열왕기상 3장 4절의 '일천 번제' 가 잘못된 번역이며 많은 교회 가 그 동안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과 믿음의 행위를 해 온 것인지 알 것이다.</p>
24	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vs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p>☞ 관련 구절: 속3:1-2, 유1:9</p> <p>■스기라서 3장 2절 말씀은 개역성경에서는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로 번역되었고, [흠]에서는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로 번역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복수로 나타내시기도 하고 자신을 3인칭으로 나타내실 수도 있다. 스기라서 3장 2절 말씀의 "The Lord rebuke you(thee)."는 가정법을 사용한 기원문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기원문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개역성경 번역자들은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소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p> <p>- 영어 기원문: (May) God bless you!, (May) The Lord rebuke you!.</p> <p>이에 반해 개역성경도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기원문으로 정확히 번역하였다.</p>
25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가	<p>☞ 관련 구절: 창12:2</p> <p>■ [개]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K] 내가 복(a blessing)이 되리라.</p> <p>오랜 세월 개역성경에 길들여진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한다(창12:2, 사51:2).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신16:17, 신28:8, 약1:17 등). 한국 기독교계에서 제법 유명한 종교 지도자 중에도 자신이 특별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예배 시간에 특정 교인들을 지명하여 자신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복과 저주를 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라는 말씀을 "내가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라고 번개하여 목사가 월권을 교묘히 행사하기도 한다. 모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잘못된 행위이다.</p>
26	온전한 십일조 vs 모든 십일조	<p>☞ 관련 구절: 말3:10, 마23:23, 민18:24;28, 신14:22,28 등</p> <p>■개역성경은 '모든' 십일조가 아닌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주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였다(말3:10). 원래 '모든' 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30절의 '모든' 이라는 말과 똑같이 히브리어 '콜' 을 가리킨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의 십일조는 온전한 십일조가 아니라 모든 십일조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민수기 18장 28절에서는 '모든' 십일조라고 제대로 번역함). 그런데 온전한 십일조라는 말로 번역해 놓다 보니 계산을 철저히 해서 십일조를 정확히 바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나 심지어 정규 소득 이외의 부수입 등을 십일조에서 누락시킬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10분의 2, 3을 드러야만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는다고 안심하게 되는 심적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p> <p>■십일조를 신약 시대의 성도가 과연 반드시 지켜야 하느냐를 논의하겠다. 구약의 율법은 신정 통치체제의 백성들인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법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십일조, 각종 절기 등을 지켜야만 했다. 이러한 유대</p>

		<p>인은 유대인만의 독특한 제사장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십일조는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민18:24 등). 십일조는 1년에 한 번과 3년에 한 번씩 돈이 아닌 현물로 드리는 것이었다(신14:22,28). 신약 시대 이후 이방인들은 결코 십일조나 안식일, 절기 등과 같은 율법의 규례들을 지킬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십일조를 잘 계산하여 바치는 바리새인들(이들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십일조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지킬 뿐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기에 부패한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심)과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십일조를 바치라는 의미×)의 내용 빼고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십일조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십일조에 관해 책망하실 때는 주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신약 시대를 예고하시는 때였지 아직 신약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니다. 신약과 구약의 기준은 바로 상속 언약자의 죽음이다. 왜냐하면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히9:16-17).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죽으실 때 휘장도 갈라지고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을 폐하시면서/완성하시면서 비로소 신약시대를 여신 것이다. 신약시대의 진정한 헌금의 원리는 바로 고린도후서 8,9장 등에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의 주제에 관해 언급하자면,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내리고 십일조를 잘 내면 복을 주신다.” 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내지 않는 백성들(율법 하에 있는 유대인 백성들)과 또 그것들을 가로채는 타락한 제사장들(유대인 제사장들)을 저주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이다.</p>
<p>27</p>	<p>네피림 vs 거인</p>	<p>☞ 관련 구절: 창6:4, 민13:33, 신2:10-11,20:3:11,13, 여17:15 등 ■[흠]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거인들(Giants)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일종의 돌연변이인) 거인들(발굴된 화석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키는 1m 정도, 최소 3m 이상)을 낳았다고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화석 자료를 통해 거인들의 존재는 진화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음역을 하여 네피림, 르바임, 에밈, 장대한 자니 하는 말을 혼용하여 독자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게 만든다.</p> <p>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 (창6:4) 이 누구에게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님의 아들들 = 타락한 천사들(욘1:6; 21, 38:7; 벰후24, 유6-7 2. 하나님의 아들들 = 셋의 자손들: 천사는 아예 결혼을 못한다고 전제, 생물학적 환경
<p>28</p>	<p>인자 vs 사람의 아들</p>	<p>☞ 관련 구절: 신약성경 전반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신약 성경에는 83회에 걸쳐 이렇게 표현하셨다. 마태복음에 30회, 마가복음에 14회, 누가복음에 25회, 요한복음에 12회, 사도행전에 1회, 히브리서에 1회, 요한계시록에 2회를 사람의 아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사람의 아들을 인자로 번역하였다. 이는 번역 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p> <p>첫째,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아들’ 로 번역을 했고(사2:12 등), 어떤 곳에서는 ‘자(子)’ 로 번역을 한다면 일관성이 없으며, 독자의 마음에 그 의미가 충분히 와 닿지도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늘(들)’ 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인데, 개역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하늘이라 했고 다른 곳에서는 승천(하4:14, ‘하늘(들)로 올라감’ 으로 번역하는 것이 줄음)이라고 번역해 놓는데, 하늘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개역성경 안에서 어찌 알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어울림(matching)의 문제이다.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성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그렇다면 신성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p>

		<p>이들로 번역을 했으면, 인성을 드러내고자 사람의 이들로 번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인자(人子)로 번역을 했다면 하나님의 이들은 신자(神子)로 번역을 해야 어울리지 않았는가? 셋째, 실제로 인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거나 이를 인자 하신 아들(또는 사람)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p>
29	일관성 없이 쓰인 단어, 표적(sign)	<p>☞ 관련 구절: 출4:8, 출12:13, 신22:20, 막13:4 등 ■[개]/[흠] ~그 처음 <u>이적</u>의 표징 ~// ~그 처음 <u>표적</u>(sign) ~(출4:8), [개]/[흠]그 피가 ... 너희를 위하여 <u>표적</u>~// ~그 피가 ... 너희를 위하여 <u>표</u>(증표; token) ~(출12:13), [개]/[흠]~처녀인 <u>표적</u>([N]:proof)이 없거든//~처녀임을 보여 주는 <u>표들</u>(tokens)이 없거든(신22:20), [개]/[흠] ~무슨 <u>징조</u>가 있사오리이까//~무슨 <u>표적</u>이 있으리이까(막13:4) ...</p> <p>이적(wonder)이란 목격자가 놀라워할만한 희한한 일을 말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miracle)이란 정상적인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상한 사건 자체(초자연적인 일)를 말합니다. 이적, 기적과 유사한 <u>표적(sign)</u>은 그 결과보다 그것이 행하여진 의미에 중점을 두며, 그것을 행하는 자의 신분과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입니다.</p>
30	번제 vs 번제헌물(☆)- 입다의 딸은 어떻게 되는가	<p>☞ 관련 구절: 사11:31-39 ■사사기에 의하면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사11:25),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여처구니 없는 사례들 중의 하나로 오해하기 쉽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태워서 희생물로 바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미워하시며 기증히 여기신다고 하셨다(신12:31, 렘7:31 등). 그렇다면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제재가 없으셨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난해한 문제는 다른 현대 역본들과는 달리 개역성경이 매우 잘못된 번역을 하였기 때문이다.</p> <p>개역성경은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는 대목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사11:31). 이에 반해 [흠]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u>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u>, 하니라(사11:31).</p> <p>여기에서 일단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입다가 처음부터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작정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둘째,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 헌물로 주님께 바쳐서 자기 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것을 의도하였는데, 개역성경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번역하여 마치 자기 딸을 태워서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게끔 만들어 버렸다.</p> <p>더욱이 37절에서는 완전 다른 의미로 오해될 정도로 기묘하게 번역이 되었다. [개] ~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u>처녀로</u>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개사11:37). [흠] ~ 나를 두 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u>처녀됨으로 인하여</u> 애곡하겠나이다, 하매(흠사11:37)</p> <p>하나님은 사람을 헌물로 받으실 때, 사람을 죽여서 받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사람을 헌물로 받으신다(민8:11, 13, 21). 입다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입다의 딸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살아있는 헌물이 되어서 평생 처녀의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p>
31	쫓아내지 아니한 vs 쫓아내지 못한	<p>☞ 관련 구절: 사1:19, 21, 27, 28, 30, 31, 32, 33, 사2:2 ■개역성경은 사사기 1장의 여러 구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등을 쫓아낼 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번역을 했다. 따라서 주의하여 개역성</p>

		<p>경의 사사기 1장을 읽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의 무능함을 불순종이라고 책망하시는지는 의문점을 갖게 한다. '쫓아내지 못한 것' 은 '쫓아내지 아니한 것' 과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이런 문법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쫓아내지 아니한 것' 을 일관성 없이 여러 구절에 걸쳐 '쫓아내지 못한 것' 으로 번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사사기 1장 19절의 철 병거를 갖춘 골짜기 거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을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냉혹하고, 무지비하고, 원칙도 없는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p>
32	인간의 규례 vs 주의 방법(☆)	<p>☞ 관련 구절: 삼하7:19;7:8-16, 삼하7:21 ■대언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다윗이 받은 후 주 앞에 드리는 고백이 개역성경과 [흠]이 정반대로 표현되어 있다. [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대삼하7:19. [흠] ~ 오 주 하나님이며, 과연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니까?</p> <p>인간의 규례에 따르면, 왕조도 바뀌고 나라도 망하고 왕위도 흔들린다.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히 굳건하게 보전되는 왕국, 영원한 왕위가 인간의 규례에 의한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규례를 따라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의 절대적인 의지(뜻)에 따라 은혜도, 긍휼도 베푸신다고 이야기 한다(롬9:16 등). 특히 사무엘기하 7장 21절에는 “주의 마음대로 주께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셨다” 고 하는 고백이 나온다. 또한 인간의 규례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은 것이라면 다윗은 절대 감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윗을 배은 망덕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사람의 방법 내지 규례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긍휼에 따른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다.</p>
33	하나님의 기운 vs 하나님의 영	<p>☞ 관련 구절: 욥26:13;27:3, 창2:7 등 ■개역성경은 욥기 2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 을 '하나님의 기운' 으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영을 단순히 어떤 영향력이나 에너지 등으로 오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역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생기' 라고 번역하여 에너지나 기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은 하나님의 <영작> 호흡(the breath of God), (하나님의) <영작> 생명의 숨(the breath of life (of God))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관련하여 욥기 26장 13절에서는 [흠]은 “그의 영으로(By his spirit)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로 번역을 했는데, [N]은 “By his power” 로 힘이나 능력으로 번역을 했으며, [개]는 “그의 신으로” 번역하여 애매함을 주고 있다. 참고로, 여호와와 증인이나 몰몬교 신도들은 성령 하나님(the Spirit of God)을 인정하기는 커녕 성령님만저 단지 어떤 힘이나 기운으로만 여긴다. 또한 단전호흡을 하는 단학수련자들이나 뉴에이지 사상가들도 성령님을 인격체로 보기는 커녕 우주 에너지, 천기 기운 등으로 부른다. 일부 기독교 신자들도 성령님을 물질이나 에너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령을 '많이' 받아야 하고,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도 성령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p>
34	세례 vs 침례	<p>☞ 관련 구절: 신약 성경 전반 ■그리스어는 '바티조'(baptizo, 스트롱 번호 907), '바티스마'(baptisma, 908번), 그리고 '바티스티스'(Baptistes, 910번)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 '바프토'(bapto, 911번)에서 나왔으며 신약성경에 총 115회 사용되었는데 용례별로 살펴보면 명사 '바티스마'가 23회,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바티스티스'가 15회, 그리고 동사 '바티조'가 77회 사용된다. 기독교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참고문헌들과 신학적 편견 없이 영어 단어 자체의 뜻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정평이 있는 「옥스퍼드 영어사전」</p>

		<p>등의 세속 문헌들은 한결같이 이 단어들의 의미가 '물로 뿌리는 세례'(sprinkling)가 아니라 '물 속에 담그는 침례'(immersion)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p> <p>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중국 성경과 한국 성경에만 이 단어가 세례로 번역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침례 의미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 침례가 세례로 바뀐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진출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세례를 주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 정도를 차지하므로 다수결의 논리를 따라 세례가 옳고 침례는 그르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한국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민족의 하나님도 되신다. 성경대로 행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이 문제 역시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성도들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 그 판결에 가까이 순종해야 할 것이다.</p> <p>■침례(baptism)는 '담그는 것' 과 '하나되는 것;동일시 되는 것;연합' 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12장 13절, 사도행전 19장 3-5절, 로마서 6장3-8절 등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침례가 갖는 의미는 물로 뿌리는 세례가 아닌 물 속에 담그는 것 내지 하나되는 것(연합) 임을 알 수 있다.</p>
<p>35</p>	<p>은혜로 믿게 됨 vs 믿어서 은혜에 들어감</p>	<p>☞ 관련 구절: 엡2:8-9, 딤후2:11 등</p> <p>■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이다(요3:36 등).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는 것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교리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개역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의미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 반면에 [흠]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로 번역하였다. 개역성경은 번역할 때에 이런 수식(한정) 관계와 같은 어법상의 처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영성하게 적용이 되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혼동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NIV, NASB 등과 같은 영어 성경들조차도 이를 바르게 번역하여 "믿어서/믿음을 통해(through faith) 은혜로(by grace) 구원을 받는다(saved)" 라고 표현하고 있다.</p> <p>믿음과 은혜와의 관계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저 구원을 받게 된다[의롭게 된다](롬4:6; 5:2). 만약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주님을 믿게 되느냐 아니냐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복음을 전할 시명도 영혼을 주께 인도할 책임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은혜로 믿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고 이해해야 한다.</p> <p>[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 [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p>
<p>36</p>	<p>죄를 지고 가시는가 vs 죄를 제거하시는가</p>	<p>☞ 관련 구절: 요1:29 등</p> <p>■개역성경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라고 선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눈이 심히 정결하시므로 악을 보지 못하신다(합1:13). 따라서 죄(악)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죄인들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다. 개역성경은 주님께서 죄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번역을 했다. 영어 성경들도 제거하다를 뜻하는 'take away' 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성경은 달리 번역을 했다.</p> <p>예수님께서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을 드리실 때에 친히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단 한 번에 속죄를 이루셨다(히7:27). 예수님은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였다(히9:26). 이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히9:12). 예수님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믿는 자들이 거룩히 구별되고 완전하게 되었다(히10:10,14). 이러한 구속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려면 죄를 제거하신 분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p>

		[흠]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29)
37	땅 위 vs 땅의 원 위	☞ 관련 구절: 사40:22 ■개역성경은 위 구절에서 땅 위(역번역:above the earth)라고 번역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 사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BC 700년경에 기록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원 위(upon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 하여 지구의 형태를 보여주셨다. 심지어 NIV와 같은 현대 역본들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역성경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는 단어 하나를 빼버리고 번역함으로써 독자가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
38	네 바람 vs 네 영	☞ 관련 구절: 속6:5, 요3:8 ■개역성경은 스리서 6장 5절에서 하늘의 네 '바람' 으로 번역을 한 반면, [흠]은 하늘들의 네 '영(spirits)' 으로 번역을 하였다. 히브리어 루아흐는 바람, 영, 호흡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본 구절에서는 네 영인 그들이 온 땅의 주 앞에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만약 바람이라면 비인격적체이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음대로 나아간다고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마음대로 부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나서 움직이기에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9	데려감 vs 붙잡아감	☞ 관련 구절: 눅17:34-37 ■개역성경은 "하나는 '데려감' 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을 당할 것이요"로 번역을 하여 독자가 '데려감' 을 휴거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를 휴거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주님께서 37절에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고 하신 말씀과 논리성이 결여되어 전체적으로 이 구절들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반면 킹제임스성경은 '데려감' 을 '붙잡혀감' 으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명확히 이해되도록 하였다. '붙잡혀감' 은 바로 대환난시에 유대인들이 겪을 대학살의 핍박을 말한다. 대환난시에 유대인 중의 일부는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해 독수리들의 밥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개역성경을 가지고서는 과연 이런 논리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줄 수 있는가? 더욱이 36절을 삭제하여 대환난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없도록 해놓았다.
40	단수와 복수의 구분은 없어도 되는가	☞ 관련 구절: 창:1;고후12:2;히4:14, 신2:17, 시106:37, 시74:14, 마24:35;27:35, 막13:31, 눅:37, 행:22, 고전10:20, 딤후 2:10, 창9:5, 사11:14, 대하36:16, 시110:1(대22:44);히:13(히10:13과 묘순), 히2:10;5:8;11:13 등 성경 전반 ■단수인지 복수인지 제대로 구분하여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번역자가 단수와 복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번역을 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
41	교훈, 가르침 vs 교리	☞ 관련 구절: 골2:22, 딤후전1:3, 10-11;4:1, 13-16, 딤후3:16, 히13:9, 요이9-10, 계2:14-15 등 신약 성경 전반 ■개역성경은 doctrine을 뜻하는 '교리', instruction을 뜻하는 '교육 또는 훈계', teaching을 뜻하는 '가르침' 을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교훈' 또는 '가르침' 으로 두서없이 번역을 했다. 교훈과 교육과 가르침과 교리라는 단어들은 그 의미가 분명 각각 다른 것이다. 각 단어의 본래의 의미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통일성 있게 번역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흠]은 doctrine을 뜻하는 '교리' 를 문자 그대로 번역(예외적으로 가르침' 으로 번역한 곳도 있음 행:42)하여 독자가 건전한 교리의 정립 및 건전한 교리에 거하는 자세의 중요성' 을 성경 안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42	충성된, 미쁘신/신실한 vs 신실한	☞ 관련 구절: 신7:9, 고전1:9;4:2;10:13, 살후3:3, 히3:2, 계1:5 등 성경 전반 ■개역성경은 미쁘신, 충성된, 신실한, 충실한 등을 뜻하는 faithful[대부분의 영어성경에 이렇게 번역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심지어 예수님도 포함)에게는 요구되는 자세로서 '충성된' 으로 번역을 하였고, 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미쁘신 혹은 신실

		<p>한' 으로 번역을 하였다. 반면 [흠]은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성품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의 자세도, 또한 성도들의 자세도 모두 동일하게 '신실하신 내지 신실한' 으로 번역을 하였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벧후 1:4)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합당한 자세도 하나님의 성품과 달리 표현하여 다소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p> <p>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1:16) 내가 겸손(온유)하니 너희도 겸손(온유)하라(마11:29, 빌2:3-11, 벧전5:5-6, 갈6:1 등)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마5:48, 딤후3:17 등)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고전4:2, 요일1:9 등)</p>
<p>43</p>	<p>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부르시는가)</p>	<p>☞ 관련 구절: 히1: 5- 12</p> <p>☑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오 하나님이여!” 하고 말 할 수 있었는가? 개역성경은 NIV 같은 현대 역본들과 보조를 같이하여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을 이들에 관한 것 으로 바꾸어 예수님의 신성을 기리고 있다.</p> <p>[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u>아들에 관하여는(about the Son)</u>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히:5, 8)</p> <p>[흠]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u>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unto the Son he saith)</u>,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p> <p>다음 구절들에서 말하시는 주체도 물론 하나님 아버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을 ' 주 ' 로 부르시며 그분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아래의 밑줄 친 말씀들을 너가, 너의, 너게, 너로 번역하여 아들 하나님을 동등하지 못한 분으로 격하하였다. 게다가 그 다음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주 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중간에 너가, 너의, 너게, 너로 번역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다.</p> <p>[흠]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며 ... <u>주께서</u>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 곧 <u>주의</u>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u>주에게</u> 기름을 부어 <u>주의</u>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 (히:8-9)</p> <p>NIV와 같은 다른 현대 역본들처럼 개역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교묘히 떨어뜨리고 있다((빌2:5-6, 요3:13)</p>
<p>44</p>	<p>구더기 vs 벌레</p>	<p>☞ 관련 구절: 막9:48</p> <p>☑개역성경은 다른 현대 역본들과 달리, 그들의 벌레(their worm:단수)를 그냥 구더기로 번역하며 '그들의' 라는 소유대명사를 빼버렸다. 개역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지옥에는 실을 파먹는 죽지 않는 구더기(들)가 있는 곳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쉽다. 물론 지옥에 이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흠]을 포함한 다른 번역본들 대부분은 '단수' 벌레를, 그리고 '그들의' 라는 소유 대명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p> <p>먼저 벌레란 무엇인가? 옴은 자신을 씹을 수밖에 없는 벌레라고 고백한다(욘17:14). 그의 친구 빌닷도 사람이 벌레라고 표현한다(욘25:4-6). 그리고 벌레들은 어둠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빛에 민감한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도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벌레와 같은 어둠의 존재라는 것이다(요3:19-20).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의 벌레(worm)가 죽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사66:24).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친히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주의 형벌을 받으실 때, 자신을 벌레로 표현하셨다(사22:1,6).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 받기를 거부한 이들의 손발을 묶어 지옥에 내던질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하셨다(마22:13). 따라서 둘째 부활 때 육체도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이 되는데, 벌레란 비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옥에서는 영혼만 고통받지 육체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려는 의도에서 주님은 그들의 벌레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p>

<p>45</p>	<p>죽인 것 vs 죽으심</p>	<p>☞ 관련 구절: 고후4:10</p> <p>▣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the dying of the Lord Jesus)을 몸에 짚어 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는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하신 주 예수님의 죽으심에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몸도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고(롬6:5-6,8)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됨(롬8:17,고후4:17)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죽음에 넘겨져도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날마다 새로워짐(고후4:16)으로써 우리의 싹을 몸조차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준비를 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p> <p>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분을 주님이시며 유일한 참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이며 모든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예수 죽인 것" 을 몸에 짚어진다"고 번역하여 십자가 모양의 어떤 것을 짚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죽인 것' 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잘못 번역해서는 안 되며 글의 앞뒤 흐름에 맞추려면 '죽인 것' 을 '죽으심' 으로 바꾸어야 한다.</p>
<p>46</p>	<p>구스인가 구시인가</p>	<p>☞ 관련 구절: 민12:1, 삼하18:21, 렘13:23</p> <p>▣개역성경은 '구스 여인', '구스인', '구스 사람'으로 번역하여 누구인지를 구분하기가 다소 어려운데, 반면 [흠]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인 구스([개]) 사람은 구시(Qushi)로, 그리고 구스인([개])은 이디오피아 사람으로, 구스 여인([개])은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구분하여 번역함</p>